

[09-10-07] 수요 간증문-김효정목사

2009년 8월 7일 금요일 밤 9:46-10:06

제주도 천국성령운동 말씀을 듣고...

하늘 심정의 깊은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신령한 단계의 눈을 떠야 한다.

육의 세계를 벗어나야 한다. 하나님의 심정과 뜻을 보기 위해서는 자신의 육의 세계를 버려야 한다.

그 단계는 도전하여 올라가야 할 곳이다. 인생의 묘미를 느끼고 싶으나.

여호와와의 성산에 오르기를 원하느냐. 자신을 버려야 한다.

네 육의 생각과 네 육의 습관을 벗어나야 한다.

신령한 세계를 사모하여라. 영의 마음의 눈을 떠야만 한다.

네 영혼의 간구함에 관심을 갖고 하늘 앞에 인생의 무릎을 꿇고 장엄한 하늘 역사 앞에 사사로운 네 삶을 버려라. 육의 세계는 때가 되면 썩어지는 것. 심정으로 말하자. 너와 나 서로의 사랑을 말없이 말하자.

하늘 길 진정으로 온전히 걸어가야 한다.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네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보고 하늘 모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중심의 길을 걸어가라. 생명의 값, 생명의 가치, 생명의 소중함, 생명을 사랑하여라.

오직 생명을 하늘 앞에 간구하고 맡기는 것만이 진정한 사랑이다.

이제 너의 단계를 육에서 벗어나서 영의 세계를 보고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높혀라.

하늘의 세계는 무한하여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고 오를 수 있는 만큼 오를 수 있는 자유함이 있도다.

끝없이 나아갈 수 있는 무한대의 하나님. 무한의 하나님 사랑을 찾아 올라가라.

끝까지 하는 자는 이루어내리라. 내 사랑의 완전함에 도전하여라.

내 사랑하는 이여. 진리와 사랑속에 무한의 자유함을 누리기 바란다.

삶의 의미를 진정 깨닫고 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인생은 누구나 하늘과 나이다. 가장 높은 단계에 서면 모두 자기 봉우리에 홀로 서 있는 자신과 나, 하늘과 일대일이다. 시간을 아껴라. 하늘만 사랑해도 시간이 부족한 만큼만 남아 있도다.

사랑하는 이에게

내 사랑을 다 내어 놓아 나는 행복하다. 나는 전부를 사랑하였기에 진정 행복하다.

나는 미련없이 최극적으로 사랑하였기에 행복하다.

내가 눈물을 흘릴 아픈 심정 속에 있다고 해도 나는 그 생명을 진정 사랑하였기에 더 이상의 미련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다. 나의 이 사랑을 인생들이 깨닫는다면 아무도 시기, 질투하지 않을 것이다.

내 사랑은 완전하다. 내가 진정 사랑하는 이에게. -나 예수가.

2009년 8월 29일 토요일 오전 07:24 - 07:41

근본의 하나님을 깨달아야 한다.

모든 천지만물 인생의 존재 가장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인간은 99% 모르고 살아간다.

세월을 아끼어 참된 삶을 깨닫고 인생의 시간이 다 흘렀을 때에야 주의 말씀의 근본을 깨달아 통한의 눈물을 흘리지 말고 오늘이 가기 전에 참 진리와 사랑의 근본자인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인생이 되

어야 참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복된 자라고 할 수 있겠다.

짐승과 인간의 차이가 무엇이더냐.

그것은 영원의 세계를 찾아갈 수 있는 무형의 세계, 영의 존재가 있고 없고의 차이 아니냐. 네 영에 대하여 살피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네 영이 하늘의 법을 사모하기를 간구할 때 네 육이 함께 따라가야만 인생의 끈고함이 없는 것이다.

영의 힘을 깨달아야만 그 가치를 더 알 수 있는 것이다.

육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한다. 인생은 들뜰 하나도 키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네 삶 속에 완전히 인정하라.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다. 진정 영광과 존귀를 하늘 앞에 돌리고 겸손히 겸허히 역사의 길을 걸어가라.

너에게 맡겨진 소명을 다 하여라. 영의 눈으로 보고 영의 귀로 듣고 영의 마음으로 느끼고 영의 머리로 판단하고.

나는 인생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 나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 말아라.

나는 그저 다 알고서도 너희들의 책임 분담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왜? 사탄이 조건 잡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인생들이 스스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인생들이 스스로 먼저 하늘을 사랑하기를 기다린다. 하늘의 법칙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순서가 맞는 것이다.

나에게 다가 오너라.

나는 한없이 가까이 와도 너를 밀어내지 않는다. 두려워말고 겁내지 말고 내 가까이 나아오라.

이제는 모두 깊이 깨달았을 것이다. 사랑의 관계는 너와 나.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만남인 것이다.

그것을 잊지 말고 빼앗기지 말아라. 모두가 나와 사랑에서 완전하기를 원하노라.

절대로 자신을 업신여기지 말고 자기를 진정 사랑하여 자기의 구원을 나와 함께 이루어가자.

자신의 생명을 깊이 깊이 사랑하여라. 네 영은 나를 만나고 나를 간절히 찾고 기다리고 함께하기를 육보다 더 애간장 타며 기도한다는 것을 생각하여라.

2009년 8월 31일 월요일 오전 09:34 - 09:47

사랑하는 이여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많은 이들은 한번 부여된 인생 속에서 진리를 잃어버린 만큼 자신의 시간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되었다.

생과 죽음의 갈림길에 섰을 때 인생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들이 자신의 삶을 두고 만족하며 세상을 떠나는 자가 몇 %가 된다고 생각하느냐?

젊은 시절, 어린 시절 태초로부터 하나님을 찾고 주를 사랑하며 진리에 눈 뜨고 영원한 세계의 것을 사모하는 마음의 유산을 가진 자는 진정 행복한 자여라.

세상을 버리라고 말할 때 이 세상이 하늘 뜻을 벗어나서 악으로 치닫고 있으니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원래의 뜻, 지상 천국이 이루어졌다면 인생들은 자신의 삶의 가치를 육이 있을 때나 영으로나 맘껏 누리며 살 수 있었을 것이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새 날을 얻기 위하여 아직은 육의 근성들을 버려야 하니 세상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다.

자신의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깨닫고 매일 매일 진리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한다.
완전한 진리와 사랑에 이르겠다는 소망을 포기하면 안된다.

특정의 사람들만이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인생의 최종 종착지는 하늘과의 완전한 사랑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갈 길은 가야 한다. 내가 인도하고 있으니 나에 대한 감각을 깨워서 내 말대로 믿고 따르도록 하여라. 세상을 다 포기하더라도 나와 사랑의 사랑을 포기하면 안된다. 그것이 구원이다.

내 마음을 스스로 오해하지 말고 사랑을 깨달아 내 마음을 알도록 하여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무한의 자유와 네 꿈이 그 속에 있다. 내 사랑 속에 형제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

자신의 육의 사고를 완전히 버리고 오늘도 내 앞에 겸허히 사랑으로 나아오라.